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비율 늘린다

기재부, 2022년까지 30% 목표... 우선구매도 20%로 확대 여성임원 비율 23%·고졸 신규채용도 9.6% 달성 방침 발표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은 20%로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난해보다 3%포인트 상향한 24%로 정했다. 2022년까지 목표로 둔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30%이다.

나주빛가람혁신도시 17개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용계획 인원 1608.5명 가운데 24.6%에 달하는 395.5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됐다.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17명 가운데 52.9%에 달하는 9명을 뽑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32명 중 16명)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6명 중 3명)도 50%에 달하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37.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3.3%), 한국전력거래소(28.2%), 한전KDN(28%), 한전KPS(25.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4.2%) 등도 목표 채용비율을 넘겼다.

한국전력공사는 채용계획 992명 가운데 217명을 지역인재로 뽑아 21.9%의 비율을 나타냈다.

올초 채용계획을 밝힌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채용 예정 인원은 총 2281명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들은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은 오는 2022년까지 20%로 올릴 계획이다.

이들 평균 구매비율은 2018년 8.8%, 2019년 13.4%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하나인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목표 금액은 1조

1250억원으로, 지난해 구매금액보다 150억원(1.3%) 증가했다.

지역 우선구매 금액은 지난 2018년 6750억원, 2019년 1조1100억원 등 매해 늘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오는 2022년까지 목표로 세운 입주기업 수는 1800개에 달한다.

한전과 지자체가 에너지밸리에 투자유치를 끌어낸 기업의 수는 이달 기준 465개사로 집계됐다.

투자금액은 2조361억원, 고용효과는 1만62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기업유치 목표(500개) 대비 93%를 달성했다. 올 들어 유치한 에너지밸리 기업은 35개사이며 투자유치액은 3640억원, 고용창출은 537명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혁신도시 지역상생 계획 외에도 이날 사회적 형평성 시책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오는 2022년까지 23%로 확대한다. 여성임원 비율은 2017년 11.8%, 2019년 21.1%로 매해 오르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임원(비상임 포함) 139명 가운데 여성임원은 29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21.6%로 나타났다. 여성임원 평균 비중 보다는 높지만 농촌경제연구원과 콘텐츠진흥원은 5년 연속 단 한 명의 여성임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고졸인재 신규채용 비율도 오는 2022년은 9.6%, 2023년까지 10% 달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일반정규직 정원 중 고졸인재 채용비율은 8.4%로, 2년 전인 2017년(8.4%)에서 제자리걸음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나주 혁신도시 올해 1분기 채용연계형 인턴 68명 가운데 고졸인재는 33.8%인 2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채용연계형 인턴 고졸인재 비율은 39.9%(2972명 중 1186명)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극복 '빛가람 릴레이 헌혈 캠페인'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6곳 임직원들이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 196장을 나누시에 전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인터넷 진흥원 등 6곳 헌혈증 196장 전달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6곳이 '빛가람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참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6곳

이다. 헌혈 캠페인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16일에는 기관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 196장을 나누시에 전달했다. 이 헌혈증이 긴급하게 혈액이 필요한 나주 지역민을 위해 쓰인다.

김석환 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보유량 감소 및 헌혈 참여율 급감 등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사학연금, 나주 지역인재 노사공동 행복나눔 장학금

2명에 250만원씩 전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21일 나주 지역인재 2명에 '제10차 노사공동 행복나눔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학연금 노사공동 행복나눔 장학금은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고 나눔 실천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사학연금은 2010년부터 매해 나주 지역인재를 위한 노사공동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5200만 원을 지원했다.

선정된 나주 출신 대학생 2명에게는 장학증서와 각각 25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사학연금 측은 "당초 장학금을 새학기 시작인 지난 3월에 전달하려했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날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명현 이사장은 "공단의 이번 장학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개강연기와 온라인 강의 전환 등 어려운 여건에서 한 학기를 보낸 학생들이 안전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 지원과 지역상생관련 사회공헌 실천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이 주최한 '동남아지역 화상 수출상담회'에서 한 협력기업이 비대면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국전력, 중소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진행

마케팅·판로개척 지원

한국전력은 지난 13-17일 5일간 협력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상담회에는 기술 수준은 우수하지만,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전력분야 중소기업 20개사가 참여했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을 신남방 대표국인 베트남과 태국의 유망 구매자(바이어)

59명을 섭외했다. 화상 수출상담은 자율적으로 선택한 장소에서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은 126건, 1000억원(미화 8400만달러) 상당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지난 10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전력기자재 중소기업 조합 대표자와 3차 실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전 해외사업 추진 때 중소기업 동반 진출 확대 ▲비대면 시대 수출지원 방안 ▲비스포 2020(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온라인 개최 등을 협의했다.

황광수 한전 중소기업지원처장은 "코로나19로 해외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화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방식의 사업이 대체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전은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코로나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화상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수출상품관, 에너지 기술마켓 등 비대면 시대의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콘진원 '랜선포럼' 콘텐츠 사업 새로운 기회 모색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 해야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과 비대면 소비문화에 시대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은? 랜선포럼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조망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명준·이하 콘진원)은 21일 랜선포럼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한다'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콘텐츠산업 현황과 대응 및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콘진원 정책본부 이양환 본부장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 본부장은 "디지털화와 개인화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이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끼치므로, 코로나19를 위기만이 아닌 산업 체질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공주대학교 배진아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콘텐츠 장르 현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비대면 콘텐츠 소비 문화 확산으로 K콘텐츠가 보다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콘진원, 온라인 콘텐츠수출애로 상담센터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기업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수출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콘진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출 애로사항 발행 시 콘텐츠기업은

콘텐츠수출마케팅 플랫폼의 상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협업 대응체계를 통해 수출지원 기관과 공유된다.

해당 서비스는 수출 애로사항을 콘텐츠 장르, 대상 국가에 따라 구분해 지원되며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